

## Trichoptysis로 발현한 Mediastinal teratoma 1예

박성진, 강순복, 김재열, 박인원, 최병휘, 허성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중격동 기형종은 전체 중격동 종양의 약 8%의 빈도를 차지하며, 대부분 전중격동에 호발하는 생식세포종으로 제 3인두낭에서 유래하며 남녀발생의 차이는 없다. 대부분 양성종양으로 1/3에서는 증상이 없으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흉통, 기침, 호흡 곤란 등을 보이며 간혹 기형종이 파열되면 객혈, 모발이 섞인 객담(trichoptysis), 폐렴, 늑막염, 심낭압전 등을 나타낸다. 최근 연자들은 trichoptysis를 보인 중격동 기형종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환자는 28세 여자로서 약 18년 전부터 간간히 혈혼이 섞인 객담을 보였으며, 수 일전부터 시작된 다량의 객혈과 trichoptysis를 주소로 내원하여, 흉부 방사선 검사상 좌측 전중격동과 좌상엽 폐실질에 걸쳐 석회화를 동반한 5\*6cm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흉부 컴퓨터 촬영상 전반적인 연조직 음영에 일부 석회화 및 지방질 음영이 있었으며 좌상엽에 수개의 동공과, 부분적으로 종괴의 침윤 소견을 보였으나 임파절 증대나 흉막삼출의 소견은 없었다. 기관지 내시경상 설상엽의 하분절지에서 모발이 관찰되었고, 확진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한 좌상엽 절제술과 종괴 적출술에서 중격동 기형종으로 진단되었으며, 환자는 수술 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외래 추적 관찰중이다

## — S-70 —

## 흉막 삼출액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이용한 M. tuberculosis의 진단

광주보훈병원 내과

엄형렬 · 명제일 · 김용록 · 임종철 · 김한균 · 강현석 · 류형선 · 김 완

서론 : 결핵성 늑막염은 늑막조직검사에서 육아종(granuloma)을 발견하거나 늑막액천자에서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결핵균을 검출해야한다. 그런데 PCR을 이용한 기법은 그 감수성이 항산균 배양과 같거나 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PCR을 이용하여 결핵성 늑막염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진단에 응용할 경우 유용성을 평가해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결핵성 늑막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30예와 비결핵성 늑막염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는 결핵성 늑막염이 확진(늑막조직검사에서 육아종을 발견하거나 객담 및 늑막액에서 항산균 도말 양성을 보임)된 8명, 임상적으로 결핵성 늑막염이 의심(ADA>45 IU/ml이고 임파구 비율이 우세하며 항결핵제에 반응함)된 22명과 대조군 25명(악성종양에 의한 흉막액 6명, 율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흉막액 8명, 간질환에 의한 흉막액 6명, 부폐렴성 흉막액 5명)으로 하였다.

결과 :

- 1) 결핵성 늑막염이 확진된 8명중 6명에서(75%) PCR양성을 나타내었다.
- 2) 임상적으로 결핵성 늑막염이 의심된 22명중 7명(31.7%)에서 양성을 보였다.
- 3) 대조군 25명중 2명에서(8%) 양성을 보였다.

결론 : 결핵성 늑막염이 확진된 경우에서 PCR의 민감도는 비교적 높으나(75%) 임상적으로 의심된 경우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31.7%) 늑막조직검사나 결핵배양 등 보다 적극적인 검사와 대조군에서 위양성률이 8%정도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